

근대일본의 산업화과정과 기업가적 역할*

- 산업자본으로서의 전환과 대기업의 등장을 중심으로-

이 덕 훈**

目 次

1. 시작하는 말
 2. 근대화와 기업가정신에 관한 선행연구
 - 2-1. 일본사회와 근대화
 - 2-2. 근대화과정과 기업가정신
 3. 근대일본의 산업화과정에서 기업가의 발생
 4. 대상가의 메이지유신 후의 위기와 극복
 - 4-1. 상가에서 재벌로 전환한 미쓰이(三井)의 변화
 - 4-2. 스미토모(住友)
 - 4-3. 신흥기업 미쓰비시(三菱)의 등장과 도전
 5. 결론
-

1. 시작하는 말

기업가의 활동이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전근대적인 사회경제체제가 근대적인 변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의 활동은 일관적이지 않다. 특히 경제주체로서의 기업가 활동은 거셴크론(A. Gershenkron)의 지적처럼 시대와 국가에 따라 정부, 은행이 되거나 순수한 민간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기업가의 활동은 일본의 근대화 및 산업화 과정에서도 유사한 모

* 본 논문은 2006년도 한남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습니다.

** 한남대학교 교수 국제경영학

습이 나타났다. 일본의 산업화는 영국의 자생적 흐름보다는 메이지유신 이후 정부의 주도하에 추진되었다. 도쿠가와 막부말기의 경제부문에서 발전은 미비했으나 상업자본의 축적은 진전되었다. 물론 상업자본의 축적이 있었다고 해서 자생적공업화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일본만이 후진적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루어 선진 산업국가로 발전하였는가. 많은 요인 중에 산업화(공업화)의 조직자로서의 정부의 역할 즉, “위로부터의 산업화”가 성공하여 근대화를 이룩한 것으로 보고 있다¹⁾.

비록 메이지정부의 위로부터의 산업화가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의 산업화의 조직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나머지 산업화를 움직이는 인적요인 즉, 기업가의 행동을 간과해서는 산업화에 내재되어 있는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한 일본적 특성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환언하면, 1990년대 이후의 사회주의 몰락은 사회주의국가의 정책이 나빴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기업가정신의 결핍으로 보는 편이 타당한 것처럼 근대일본의 산업화를 설명할 때 적절한 표현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에도시대부터 존재한 商家 즉, 미쓰이(三井)와 스미토모(住友)가 재벌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요인의 하나인 家業을 어떻게 기업으로 발전시켰는가와 전통적 상인계급의 쇠퇴와 전문적경영자의 등장에 대한 분석과 상인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시킨 기업가적 역할을 분석하기로 한다. 두 번째, 메이지유신후의 산업화과정에서 등장한 미쓰비시(三菱) 재벌 같은 신흥재벌의 기업가적 행동에 대해 에도시대부터 존재한 상가와와는 다른 政商의자본에서 산업자본으로 전환한 과정을 분석하여 그들의 기업가적 행동을 살펴보기로 한다. 세 번째, 근대화를 일으킨 무사계급들이 산업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이들이 전문경영자로서 새로운 사회에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특히 明治維新 이후의 산업화과정에 있어서의 전문경영자로서 무사계급의 기업가적 활동에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한다.

2. 근대화와 기업가정신에 관한 선행연구

2-1. 일본사회와 근대화

1) 土屋喬雄, 続日本經濟史, 岩波新書, 1955, 와 高橋龜吉, 日本近代經濟の育成, 時事通信社, 1970. 을 참고할 것.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근대화라는 단어에 대해 접할 경우 우선 그 용어 설명에 우선 시간을 들여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근대화란 근대적으로 되는 것(becoming modern)을 말한다. 그렇다면 근대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일상용어상 근대적이라는 것은 무척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역사상의 시대 구분으로서의 근대(the modern time)를 의미하며 근대적인 것(the modernity)을 말하기도 한다²⁾. 근대는 또한 구체적인 역사 사실, 특히 근대화라는 역사 과정이 시작된 장소인 서양의 역사사실과 관련이 깊다. 그러나 지금은 西洋史의 역사 사실로서의 근대로부터 추출되어진 근대적인 것이 지금은 서양 이외의 사회들에도 확대되어짐으로써 서양이라는 특정의 장소를 벗어남으로써 일반적인 개념화를 지칭한다.

1950년대에서 사회학자들을 주축으로 하여 산업화 중심의 이론화가 행해졌지만 가장 많이 사용된 개념은 근대화였다. 근대화이론은 전후 1960년대를 기점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핵심개념은 정치적 근대화(민주주의)와 경제적 근대화(경제성장) 이었다³⁾. 또한 한정적으로 산업화가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발전에 관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을 반대하는 개념으로 근대화가 정치적, 사회·문화적 측면의 발전에 관한 것으로서 한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⁴⁾. 그리고 근대적 인간이라는 인간의 개성으로서 사용되기도 하거나 사회변동을 중심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근대화를 모든 것을 총칭하는 일반화의 개념으로 사용하여 사회진화의 개념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그 맥락에서 보통 ‘근대화’(modernization)란 말은 전통적이고 봉건적 사회의 체제가 해체되어 근대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으로 논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이 ‘근대화’ 라는 단어 속에는 “봉건제도로부터 자본주의로의 이행” 을 지칭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토착사회의 공동체제도의 해체의 과정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⁵⁾. 또한 후진국에서 후진국이 아닌 상태로 바뀌는 과정으로도 표현된다⁶⁾. 이러한 정의로만 미루어 보더라도 근대

2) 富永健一, 日本の近代化と社会變動, 講談社学術文庫, 1995, p28
 3) Lewis, W. Arthur,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59. ; Hoselitz, Bert F., Sociological Aspects of Economic Growth, Free Press, 1960. ; Rostow, Walt W., The Stage of Economic Growth,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0.
 4) Benedix, Reinhard, Nation-Building and Citizenship, New York, Wiley, 1964. Apter, David E., The Politics of Moderniz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5.
 5) 전통적 사회의 토대를 만드는 전근대적 공동체의 기본형태는 토지보유관계가 그 경제적 형태의 주를 이루고 있다. 이점에 관해서는 B.F. Hoselitz and W.E. Moore (eds), Industrialization and Society (Unesco, Mouton) 1963. 을 참고할 것.

화는 다양한 차원(Dimension)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근대화라는 의미는 학자에 따라 그 정의가 다른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국가의 처해진 입장에 따라 또는 그 시대에 따라 근대화의 의미도 다양성을 갖고 있다.

서양권에서의 ‘근대화’라는 의미는 서구의 자본주의 내지 시민사회의 경제 또는 사회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일부의 국가에서의 근대화는 서양화(Westernization)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동양권의 후발공업국 일본의 근대화도 어떤 의미에서는 서양화(서구화)를 생각하였고 서구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근대화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근대화는 사회주의 체제로 근대화를 이룩한 국가도 있으므로 자본주의 경제만을 고려하는 것은 직접 관계가 없다고 하겠다.

또한 서구권 이외의 근대화는 서양근대문명의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서 서양화(westernization)의 흉내, 즉, 서양의 자본주의와 서양의 법체계,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 이루어진 서양의 경제발전의 단계로 이어지는 ‘경제의 근대화’와 봉건적 사회와 문화, 제도로부터 탈피하는 인간의 정신적인 ‘사회의 근대화’로 분류될 수가 있다.

로스토우(W. W Rostow)는 근대화를 경제발전의 진화론적 단계과정⁷⁾으로 보았으며 스멜서(N. J Smelser)에 있어서의 근대화는 경제성장에 수반된 사회구조가 점차 분해되는 과정이며 이분화에서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나누어 가는 과정⁸⁾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레비(M.J Levy)는 근대화의 정도를 전체인구가 특정소속을 공유하고 있는 정도로 규정하고⁹⁾ ‘더 근대화된 사회’와 ‘덜 근대화된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거셴크론(Gershenkron)은 독일의 철강업을 축으로 한 급속한 공업화를 예로 들면서 후발사회 근대화는 기술을 자력으로 만들 필요가 없이 빌린 기술(borrowed technology)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진국보다도 빠른 속도로 산업화를 달성하여 선진국을 추격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¹⁰⁾. 이러한 근대화에 관한 해석은

6) 고승제, 한국근대화론, 한국사상사, 1976.

7) Walt W Rostow, The Strategies of Economic Growth,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0

8) Neil S. Smelser, “Mechanism of Change and adjustment to Change ” in Bert F. Hoselitz and Wilbert E. Moore (eds), Industrialization and Society. (The Hague: UNESCO and Mouton) 1963. pp. 32-54.

9) Marion J Levy Jr. “ Social Patterns (Structure) and Problems of Modernization” Wilbert E Moore and Robert M Cook (eds) Reading on Social Change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N.J. 1967. pp189-208.

10) Alexander Gershenkron,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Harvard University

발전도상국의 경우에 다르게 설명되기도 한다.

발전도상국이 근대화에 관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선진 국가들이 과거 근대화과정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주장이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근대화이론의 반대이론으로 등장한 것이 종속이론 (dependancy theory)이다. 프랭크 (Frank)는 발전도상국이 선진제국에 종속되면서 양자가 공존하는 관계를 중심(metropole)과 위성(satellite)으로 표현하였다¹¹⁾. 월라스테인(Wallerstein)도 비슷한 개념을 사용하여 중핵국가(core-state) 반 주변(semi-periphery), 주변(periphery)으로 나누기도 하였다.

이처럼 근대화는 산업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전통적 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이며 사회구조의 변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근대화의 개념 및 정의가 각계에 걸쳐 다르게 사용되고 있으나 주목해야 할 점은 근대화는 다른 나라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국의 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셔널리즘과 이나 민족주의와도 관계가 깊다고 하겠다.¹²⁾

따라서 일본의 근대화는 명치유신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폭넓은 인식 하에서 인간사회의 발전 단계는 원시사회에서 고대사회, 고대사회에서 봉건사회로 그리고 봉건사회에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전개해 가는 것에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발전 단계는 전통적사회의 문화와 관습으로부터 탈피하는 정신적인 사회의 근대화보다는 서양의 과학, 기술의 발달에 의해 경제수준이 발달되는 산업화중심의 근대화로 발전되어 후에는 부국강병을 위한 근대화로 이어져 갔다.

2-2 근대화과정과 기업가정신

일본의 산업화(공업화)에 대한 연구의 주류는 동양의 후발국 일본이 어떻게 근대화를 성공시켰으며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었으며 또한 패전 후에 어떤 이유로 급격히 성장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연구였다. 이러한 학자들의 관심은 일본의 근대화성공¹³⁾과 일본의 사회문화와 혼합된 일본적

Press, 1962.

11) Andre G. Frank, Latin America: underdevelopment or Revolution, Monthly Review Press,1970.

12) 1950년대 말과 60년대 초에 근대화가 세계적으로 관심을 집중시킨 것은 식민지에서 독립을 추구하고 제3세계가 많았으며 그들이 부르짖었던 것은 자립과 자주이었으므로 근대화는 민족주의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

13) F.H Harbison and C.A. Myers, Management in Industrial World, 1967.; George Filipetti,

경영에의 관심¹⁴⁾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다르지만 결국은 근대화성과 귀결되기 때문에 일본의 산업화가 일본의 사회 문화, 제도를 변화하고 규정지었다고 주장하는 요인과 일본의 사회문화요인이 일본의 산업화요인을 촉진한다는 논리로 구분되어 진다.

다시 말하면 기업가의 활동을 산업화과정에서 등장한다고 보는 견해와 타국과는 다른 사회문화적 요인이 기업가의 활동을 촉진시킨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그러나 산업화과정에서의 견해와 사회문화적요인과의 관계는 상관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어느 한쪽의 측면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기업가의 행위와 경제발전이 사회문화구조의 산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이 대립되면서도 그 주장이 계속되어왔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업가정신을 사회경제구조의 특성요인과 어떠한 가치로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또한 이것을 떠나서 설명하기도 어렵다. 근대화과정에서의 등장한 실업가의 대부분은 무사출신자 이었다. 이 시기에는 기업가란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스치야(土屋喬雄)¹⁵⁾는 산업화과정의 일본적 특수성을 설명한 최초의 기업가적 설명이었다.

기업가 및 기업가정신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근대일본의 기업가정신의 연구는 외국학자에 의해 시작되었다. 힐슈마이어(Johannes hirsmeier)¹⁶⁾가 메이지(明治)기의 재벌 창설자를 검토하고, 50인의 대표적 기업자를 샘플로 하여, 그들의 출신계급, 교육, 출생지등을 조사했다. 일본의 근대화과정과 기업가의 출신계급에 중점을 두었던 견해는 유이(曲井常彦)¹⁷⁾와 아사노(淺野 俊光)¹⁸⁾가 대표적인데 이들은 메이지기의 기업가의 공급원에 대해 출신계층으로 분석하여 중류, 중산이라는 중간층 배경의 인물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시가와 (石川健次郎)¹⁹⁾도 메이지시기의 실업가의 배출율에서 무사출신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근대화과정에서 나타난 상가의 재벌화에서 역점을 두었던 견해는 모리가

Industrial Management In Transition, Irwin Inc, 1953.; Robert N Bellah, Tokugawa Religion, Glencoe3, Free Press, 1957

14) Yoshino, M.Y.(1968), Japan's Management system: Tradition and Innov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Webber, ed., Culture and Management : Text and Readings in Comparative Management, Irwin Inc, 1969.; B.M. Richman, Significance of Cultural Variabl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Dec, 1965.

15) 土屋喬雄, 日本資本主義の經營史的研究, みすず書房, 1954.

16) Johannes hirsmeier .ヒルシュマイヤー, 日本の企業家精神の生成, 東洋經濟新報社, 1965.

17) 曲井常彦, '工業化と企業家活動' 日本經濟新聞社, 1968.

18) 淺野 俊光, 明治よりみた企業家の分析, 經營史學, 14卷3号, 1980.

19) 石川健次郎, 明治期における企業者活動の統計的研究, 大坂大學經濟學23卷4号, 1984.

와(森川英正)²⁰⁾ 야스오카(安岡重明)²¹⁾ 등인데 이들은 재벌계, 비재벌계라는 한정을 두었지만 재벌창업자와 출신배경과 전문경영자의 출신과정과 시기 별의 속성적 특징을 명확하게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특성을 조금 더 나타내기 위하여 비교를 통하여 근대화과정에서의 기업가활동을 나타낸 비교경영사적 견해는 나카가와(中川敬一郎)²²⁾와 블랙포드(Mansel Blackford)²³⁾가 일본과 서구의 경영이념의 비교사적 검토를 시도하여 일본의 경영이념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이들의 제 연구는 재벌의 발전과 경영 그리고, 근대일본의 기업가, 경영자의 사회적 특성, 공급원 또는 의식 등의 특성에 대해 각각 결론에는 다소의 상이를 보이지만 근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본적 특수성을 찾으려고 노력 하고 있다.

3. 근대일본의 산업화 과정에서의 기업가의 발생

1868년 메이지유신에 의해 뒤늦게 산업화를 시작한 일본은 근대적 경제제도, 근대적 과학기술 등을 과감히 도입하여 서구자본주의화에 노력하였지만 산업화 그 자체가 높은 위험 부담률이 있는 것은 물론, 산업화를 출발시킬 경제주체의 출현이 최고의 과제였다. 일부학자들은 자본부족과 설비부족을 논하지만 적어도 자본면에서는 도쿠가와 막부의 쇄국정책으로 인해 해외무역이 제한되어 있었지만. 에도시대에 이미 많은 부를 축적한 상인과 거대한 상인자본도 있었다²⁴⁾.

그러나 이러한 상인에게는 그 거대한 자금력을 근대산업에 투자하려는 의욕이 빈약했을 뿐 아니라 때로는 그들의 家業자체가 근대화에 역행하여야만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일에 종사하기도 했다. 즉 에도시대의 상인에게 제일 중요했던 것은 가업을 유지하고 가업을 증식시키려는 것이었기 때문

20) 森川英正、明治期専門経営者の形成とその背景、関東学院大学経済系、1964；-----，日本財閥史，教育社，1978.

21) 安岡重明、財閥の経営史、日経新書、1978；-----，財閥史研究，日本経済新聞社，1979.

22) 中川敬一郎、日本の工業化過程における組織化された企業者活動、経営史学.2卷3号,日本経営史研究会；-----.比較経営史序説,東京大学出版会，1981.

23) Mansel Blackford, The Rise of Modern Business in Great Brita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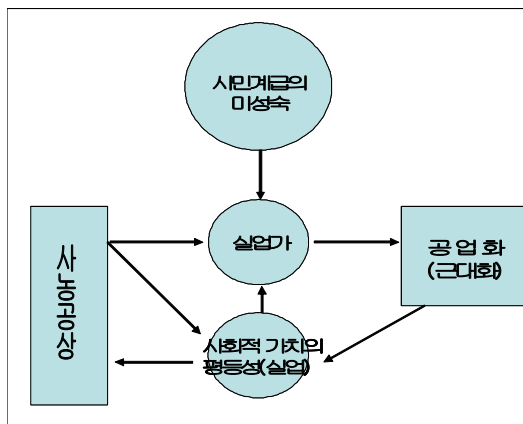
24) 藤田貞一郎、商家の資本蓄積,日本経営史講座1,本経済新聞社,1977, pp119-131.

에 家業에서 이탈, 새로운 근대산업에 진출은 엄격히 규제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엄청난 위험도 포함하였다²⁵⁾.

따라서 공업화과정의 경제기회의 확대기에 있어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미지의 가능성을 향해 창조적으로 이탈 반응하려는 의식, 행동을 상인계급에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한 기대였다고 하겠다²⁶⁾. 신사회(자본주의사회)에서의 경제주체는 상인계급에서는 나타날 수 없었고, 그렇다고 명치유신의 새로운 주체인 武士계급 만으로도 어려웠다.

<그림1>의 일본의 산업화과정과 실업가의 등장에서 보여 지듯이 일본은 사농공상계급이 존재했고 상인계급(농, 공포함)과 무사계급에서도 산업화에 누구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시민계급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근대화를 짊어질 기업가가 서구사회처럼 등장하기 어려웠다.

<그림 1> 일본의 산업화(공업화)과정과 실업가의 등장



이 시기,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는 일본의 근대화 즉, 식산흥업은 이익중심의 장사꾼대신에 새로운 경영자 즉, 실업가가 필요한데 후쿠자와는 당시의 존재한 사농공상계급의 구별로서는 산업화(공업화)가 어렵기 때문에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사농공상의 구별 없는 사회적가치의 평등성 즉, 실업만이 문명개화를 위해 불가결한 것으로 주장하였다.²⁷⁾ 즉 시민계급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자발적인 기업가는 양성되지 않으므로 근대화를 위하여

25) 安藤良雄, 日本資本主義の歩み, 講談社現代新書, 1978, pp12-19

26) 명치정부의 공업화 추진정책으로 · 철공업 · 조선 · 제사 · 방적 등의 초기 근대산업부문에서 관영사업으로 출발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상기하면 이 점은 쉽게 이해된다.

27) 이덕훈, 근대일본기업가와 무사정신의 변용 한일경상논집, 제15권, 1998년8월, 한일경상학회, p175.

사농공상 그 누구도 과거의 이익만을 취하는 허업(虛業)이 아닌 부국강병에 필요한 實業만이 일본의 근대화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담당할 주체 즉, 실업가가 필요한 것이었다.

봉건사회의 상인들에게는 개인과 집단의 이익인 私利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국익을 위해서 움직인 일은 거의 없었다. 이시기는 외국과의 불평등관계의 무역협정체결등과 서구와의 불평등조약으로 인하여 국익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 즉 국가가 있기 때문에 국민이 있다는 입장에서부터 국익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국강병에 필요한 실업은 지금까지의 상인보다는 신교육을 받은 자가 그 역할을 담당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實業家라는 용어를 탄생시켜 무사계급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비즈니스라는 직업에 무사계급이 참여한다는 것은 당시로는 대단한 사회적 혁신이었으나 후쿠자와의 주장은 사회에 침투되어 무사출신, 상인출신, 농민출신 등에서 새로운 타입의 기업가가 등장하여 비즈니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산업화의 추진자가 되었다. 근대화시기인 메이지기의 경영자의 출신배경을 살펴보면²⁸⁾ 무사계급이 48%, 상인이 23%, 농부출신이 16%를 차지하여 상인계급에서의 실업가로의 전환보다는 무사출신이 실업가로서의 전환이 비약적이었다고 하겠다²⁹⁾. 이들의 기업가들 가운데 새로운 근대산업의 발달에 노력한 지도자형 기업가, 정부의 식산흥업정책의 보호에 결부되어 발전한 정상형 기업가, 메이지유신후의 산업화과정에서 등장한 재벌의 전문적경영자로서 그의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엘리트계급이 일본의 근대화과정의 비즈니스에 참여한 것으로서 구미는 물론, 중국과 조선 등 동양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일본적 특징으로 볼 수 있다.

4. 대상가의 메이지유신후의 위기와 극복

막번제(幕藩制)체제 사회로 불리던 에도시대에는 상품경제의 발달을 전제로 한 사회였으나 자급경제의 사회는 아니었다. 이것을 단적으로 표명한 것이 이시다카제(石高制)이다. 이는 쌀의 생산능력에 의해 토지와 경제력

28) 石川健次郎, 전계서, pp17-21

29) 이덕훈, 전계서 p180

그리고 생산력은 물론, 한 영주의 지위도 표시되었을 정도이다. 에도시대에는 쌀의 거래를 중심으로 한 상업조직이 발달하였다. 에도(江戸)(오늘의 동경)는 오사카(大阪)처럼 전국적인 정치경제의 중심지, 죠카마치(城下町)에는 도매상이나 소매상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인들은 소위 체제적 존재였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았다.

막부 말기부터 메이지 전기까지는 종래 대도시의 특권적인 상인이나 금융업자에게 수난 시대였다. 개항에 따른 상품 유통·금융 기구의 격변, 도쿠가와 막부의 붕괴와 메이지 신정부의 성립에 따른 御用金³⁰부과, 메이지 정부에 의한 신화폐제도와 상공업자 동업조합의 해방 등이 그 원인이었다. 막번제적(幕藩制的) 시장 구조를 전제로 존립 하고 있던 상인이나 금융업자는 이러한 경영환경의 격변에 의해 곤경에 빠진 것이며,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도록 도와준 경영자의 기업가정신, 그리고 신흥기업가, 그리고 근대 일본상가의 전문경영인의 등장과 이들의 기업가정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4-1. 상가에서 재벌로 전환한 미쓰이(三井)의 변화

4-1-1. 상가에서 정상으로의 전환

미쓰이의 경우, 미쓰이의 전체통괄 기관인 오모토가타(大元方)의 운용 자산 액수는 1710년 하반기에 65100관이었지만 이후 급증하여 1774년 하반기에는 피크인 8만22백 관에 다다른 후, 4만 관 전후로 멈추고 에도막부 말기에 다시 상승해 1867년 하반기에는 5만8천3백 관이 되었다. 다만 이 증가는 환전점의 예탁금에 의지한 것이며 이익율은 저하되고 있던 모양이다. 주력 사업인 포목업은 매상고, 이익금의 추이에서 볼 때 18세기 중반부터 정체적이고, 특히 막부 말기에는 거액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다.³¹⁾ 또 하나의 사업의 중심이었던 환전업도 불량자산의 증가에 의해서 부진을 면치 못했다.

1864년 이후 3년간에 도쿠가와 막부로부터 266만량(兩)의 어용금상납을 명받았다. 당시 미쓰이의 오모토가타(大元方)의 자산액은 포목점 35만 31,99량, 환전사점 12만5051량, 부동산 13만6,214량, 다이묘하타모토 대부액 7만 9,765량 등과 현금14만4,742량을 합해 겨우 총자산 99만6,726량에 해당되는

30) 에도 시대에 막부·다이묘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어용상인들에게 임시로 부과하던 금전

31) 橋本寿朗, 武田晴人, 日本經濟の發展と企業集團, 東京大学出版会, 1993, p.22

자산밖에 없었다³²). 오모토가타의 총자산액이 96만량정도이니 도저히 부담할 수 없는 액수였다. 이러한 위험한 시기에 미노무라 리자에몽(三野村利左衛門(1822-77)의 뛰어난 교섭 능력으로 어용금의 대부분을 면제 받았다.

이 업적으로 인해 그는 1866년에 신설한 미쓰이 오모토가타 방직속의 어용소³³의 소장격으로 정식으로 미쓰이가(家)에 고용되었다. 미노무라는 메이지유신을 미쓰이의 재출발의 신호탄으로 간주하여 메이지 신정부 지지 방침을 정하고 맨 먼저 1868년 2월, 오노(小野), 島田(시마다) 양가와 함께 정부의 회계 사무국 환율기관인 가와세가타(為替方)³⁴로 되어, 동정군(東征軍)의 전쟁비 조달, 회계기립금 300량(兩)의 모집채권, 태정관찰(太政官札)³⁵의 발행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각 부처의 관금 취급을 행하게 되었다. 1871년에는 단독으로 정부의 신화폐 고용환율기관으로 임명되어 地金(가공의 재료가 되는 금속)의 수취와 신화폐의 지불을 업무로 하는 가와세자 미쓰이구미(為替座三井組)를 창설했다.

그리고 미쓰이는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麿)로부터 대장성(大蔵省)의 태환권과 개척사(開拓使)³⁶ 태환권(兌換券)의 발행, 그리고 각각의 발행액의 2할 자기 용통이라는 특권을 얻었다.

한편, 1874년 5월 미쓰이는 간신히 은행 설립의 기회를 얻어 어용소를 미쓰이구미가와세(三井組為換) 은행이라고 개칭했지만 같은 해 10월 관금 취급의 특권이 주어지고 있던 오노(小野), 시마다(島田), 미쓰이 3家에 대해 메이지정부는 갑자기 취급 금액의 3분의 1이었던 담보를 전액 내도록 명했다. 오노, 시마다가 이것에 대처하지 못하고 폐점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비해³⁷ 미쓰이는 관금 보관 금액이 비교적 적은데다 미노무라가 미쓰이는 영국의 오리엔탈 은행 요코하마 지점에서 100만 엔이나 되는 다액의 긴급 용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 위기를 간신히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³⁸). 미쓰이 은행은 1877년 자본금 200만 엔으로 설립되었다. 설립시의 예금총액의 비율은 정부의 비율이 50%를 차지하여 정부와 밀접한 관계의 정상자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³⁹).

32) 坂本藤良, 幕末維新の經濟人, 中公新書726, 1986, p112

33) 막부가 관세수입을 기초로 에도시중에서 상품담보대부를 실시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미쓰이가 설립. 메이지시기에 들어서는 관금취급을 주된 업무로 하게 된다

34) 메이지 초년 국고의 금전수납 · 지불 · 송금의 직무를 담당하던 기관

35) 1868년 유신정부가 발행한 불환지폐

36) 메이지 초기에 홋카이도와 그 보속 도서의 행정 · 개척을 관장하였던 관청

37) 木村恒夫, 銀行其の他金融業の發達, 岩波書店, 日本資本主義發達史講座, 1982, pp5-6.

38) 石井寛治, 銀行設立前後の三井組, 三井文庫論叢, 1983年, 17号참고.

또한 미노무라는 미쓰이 내부의 개혁을 시도하여 1871년 미쓰이는 대개혁안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改正規則書인데 다음과 같은 개혁이 이루어졌다, 우선 상점의 순위를 1위를 포목점, 2위를 환점상, 3위를 어용소 등으로 지정하고 3년마다 집계하여 이익금이 큰 상점의 순위로 바꾸도록 명했다. 또한 3년마다 이익금을 올린 점원에게 이익금의 1/10 을 포상금으로 준 것을 반년마다 평가하여 이익금의 20%를 점원에게 배당토록 하였다.

미노무라의 중요한 역할은 막부말기부터 유신시기에 걸쳐 정치, 경제정세의 예측이 어려운 시기에 정치적 판단력과 리더십에 의해 오랫동안 미쓰이가문과 막부와의 관계를 부드럽게 단절시키는데 성공하고 미쓰이를 메이지정부의 유력한 어용상인으로서 설 수 있게 한 점이다. 그리고 여기에 끝나지 않고 미쓰이가 내부의 체재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미쓰이 은행, 미쓰이물산을 설립⁴⁰⁾한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미쓰이의 발전의 기초를 튼튼하게 한 미노무라의 공적은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막부 말·유신기에 미쓰이家가 위기를 간신히 벗어날 수 있던 것은 탁월한 정치력으로 이노우에 등의 정부 고관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미쓰이家 사업을 주도해간 미노무라의 역량에 힘입은 바가 컸다. 즉, 그는 상가에서 政商자본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기업가적 역할을 하였다.

4-1-2. 政商자본에서 산업자본(재벌)으로의 전환

미쓰이를 政商에서 재벌로의 전환 다시 말하면 정상자본에서 산업자본으로의 전환을 가능케 한 경영자는 나카미가와 히코치로(中上川彦次郎, 1854-1902) 이다. 나카미가와는 1854년 九州의 나카즈(中津)藩士에서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의 생질로 태어났다. 그리고 16세에 상경하여 후쿠자와의 慶応義塾(게이오 대학의 전신)에서 배운뒤에 1875년부터 7년간 영국에 유학을 시켰다. 나카미가와는 영국유학중에 알게 된 이노우에의 덕분으로 공부성과 외무성에 출사하였고 時事新報社의 사장, 산요(山陽)철도의 사장을 역임한 후에 1889년 미쓰이에 입사하였다.

당시 일본은 이미 근대적재정과 금융의 기구가 정비되었고 근대산업이 생성되고 새로운 산업사회가 급속히 형성되고 있는 중 이었지만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대해 미쓰이 에서는 주체적으로 대응할만한 강력한 리더가 없었다. 그는 미쓰이 은행의 상무이사 및 미쓰이 본사의 중역을 맡아 미쓰이

39) 森川英正, 日本財閥史, 教育社, 1978. p32.

40) 安岡重明, 財閥の經營史, 日經新書, 1984, p28.

의 개혁을 시작하였다. 후쿠자와 문하생으로서의 후쿠자와의 사상과 영국 유학의 경험을 살려 영국의 산업화를 이룬 경제합리화 주의에 기초한 것이다⁴¹⁾.

그의 중요한 개혁은 첫 번째로 정부와의 결탁으로 발전한 미쓰이의 사업을 정부로부터 독립시켜 민간의 비즈니스로 확립시켰다는 점이다. 당시의 정상적 특징을 갖고 있던 미쓰이로서는 실행 곤란한 문제였지만 나카미가와는 불량채권의 정리와 미쓰이 은행의 정부자금의 취급업무를 사퇴하고 정부의 고관과 은행과의 관계도 단절하여 정상자본을 청신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미쓰이의 자본을 공업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근대적인 공업회사를 갖게 하였다는 점이다. 이정책에 의해 1890년의 미쓰이는 미쓰이광산과 4개의 제사공장, 두 개의 방적공장과 지포제작소를 직접 운영하는 것 외에 가네가후치(鍾淵)방적, 오지(王子)제지등을 산하에 두어 재벌로 가는 기초를 쌓았다고 하겠다. 세 번째는 미쓰이에 학사출신의 유능한 인재를 많이 채용하고 발탁했다는 점이다. 봉공인 제도에서 고등교육을 마친자를 스카우트 형식으로 발탁하였다.

특히 나카미가와는 예금은 차입금이라는 이념에서 미쓰이 은행을 예금은행으로의 확충에는 소극적이며 사립은행으로서의 자리매김과 공업의 확충에 열심이었던 점이다.⁴²⁾ 두 번째는 당시에는 봉공인제도가 정착하여 능력보다는 년공으로 승진이 이어짐을 최신헌문을 배운 慶應義塾 출신자들을 대거 채용했다는 점이다.

<표 1>의 미쓰이 은행원의 채용과 퇴직의 현황에서 나타나듯이 행원총수는 1892년부터 감소가 계속되지만 특히 제2기의 감소가 현저하다. 각기간의 퇴직율은 제2기가 높지만 차이는 별로 없고 오히려 행원의 추이는 채용의 동향에 의해 규정되었다. 제2기의 직원의 퇴직율이 높았음이 나타났고 제1기와 비교해보면 직원의 채용율이 높았기 때문에 직원의 교체가 큰 폭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나카미가와가 1889년 입사 후 3년 뒤에 고등교육을 마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행원을 모집하였는데 학력보다는 출신교와 경력을 중시하였다. 당시에는 고등교육을 마친 엘리트가 관계, 교육계, 법조계로 갔기 때문에 민간기업에 취직하려는 자는 거의 없었다⁴³⁾. 왜냐하면 교육을 받지 못했던

41) 曲井常彦, 中上川彦次郎の人物と経歴, Business History Review, 1975, 64卷1号.

42) 日本経営史研究所編, 中上川彦次郎伝記資料, 東洋經濟新報社, 1969, p546.

43) 武内成, 三井呉服店及び三井工業部における慶應義塾卒業生の動向, 近代日本研究, 慶應義塾福沢研究センター, 1986, pp67-71.

소년들이 뗏목을 거쳐 반토까지 가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자로서는 민간기업을 하급으로 보았다⁴⁴⁾. 그래서 행원의 급료를 대폭적으로 인상하였고 물적급여, 퇴직금을 신설하여 관료지원자를 처음부터 미쓰이에 채용하여 경영활동의 근대화를 꾀하였던 점⁴⁵⁾은 높이 살만하다.

<표 1> 미쓰이 은행원의 채용·퇴직의 추이 (단위: 명)

	1888 재직	제1기 퇴직	92 잔존 1 ²	92 잔존 2 ³	제1기 채용
총 수	909	357	552	552	409
직 원	592	194	398	300	29
日給고 용	209	112	97	196	315
日給노무자	108	51	57	56	65
	1892 재직	제2기 퇴직	95 잔존 1	95 잔존 2	제2기 채용
총 수	961	534	427	427	168
직 원	329	172	157	268	66
日給고용	511	277	234	123	66
일급노무자	121	58	36	36	36
	1895 재직	제3기 퇴직	98 잔존 1	제3기 채용	
총 수	595	277	318	242	
직 원	334	112	222	...	
日給고용	189	93	96	...	
日給노무자	72	72	0	...	
	1898 재직	제4기 퇴직	98 잔존	제4기 채용	1902 재직
총수	560	241	319	125	444

출소: 三井銀行員名簿, 각년도, 三井文庫所藏史料, 銀行2.

나카미가와는 장부기록과 셈기록을 하는 정도가 아닌 미쓰이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인재가 필요했던 것이다. 1891년부터 1901년까지 경응의숙출신자가 115인 임행했다⁴⁶⁾. 나카미가와는 奉公人 제도에서 使用人제도에의 전환을 하여 고용관계를 근대화시켰다. 그가 채용한 학식자들 중에 朝吹英二, 日比翁助, 鈴木梅四郎, 藤山雷太, 和田豊治, 武藤山治, 池田成彬, 藤原銀次郎 등 경영자로서 걸출한 업적을 남겨 미쓰이 뿐 아니라 일본의 산업계에도 커다란 업적을 남긴 인물이 많다⁴⁷⁾.

44) 中井信彦, 三井家の経営, 社会経済史学, 1966, pp97-99.

45) 坂本藤良, 日本雇用史(上), 中央経済社, 1977, pp171-190.

46) 千本鏡子, 中上川彦次郎の 使用人待遇の 理念, 同志社商学, 1983, 제35권2호.

47) 野田一夫, 財閥, 中公新書, 1981 p14.

상술한 나카미가와와의 정책은 청일전쟁을 계기로 단기간에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1891년부터 1894년의 불황은 나카미가와와의 정책 중 중핵이었던 공업부문이 타격을 받으면서 그의 너무 철저한 개혁안에 반대가 심하여 미쓰이에서 물러났으며 그에 대한 평가도 다양하다. 그러나 적어도 미쓰이 商家를 재벌로 성장케 한 공업화정책과 서양식의 인재채용에 대해서는 그의 기업가적 선견성을 엿볼 수 있다.

4-2. 스미토모(住友)

에도시대에 스미토모家は 미쓰이와 마찬가지로 가업을 편성하여 대상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에도말기 스미토모의 가업의 두 지주인 구리(銅)채굴의 벳시동산(別子銅山)의 산출량 감소와 금융업의부진으로 경영난에 부딪힌다⁴⁸⁾. 우선 벳시동산은 에도막부 말기에 가까운 1826-44년에는 비용의 상승과 막부의 저동가(低銅價)정책에 의해서 확실히 파탄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45년 이후 동가격의 인상과 조성금 교부라는 막부의 보호정책에 의해 업적이 호전되어 막부 말기를 맞이했다. 금융업은 우선 후다사시(札差)업을⁴⁹⁾ 하고 있던 아사쿠사점(淺草店)은 타격을 받으면서도 에도막부 말기까지 지탱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환전을 하고 있던 나카하시점(中橋店)은 1829년 이후 거액의 불량 채권과 채무에 의해서 부진에 허덕였다. 한편 1839년 이후 개혁이 진행되고 있던 오사카 본점(大阪本店)에서는 1849년에 도자가케야(同座掛屋)⁵⁰⁾로서의 예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파탄 직전의 상태가 되었지만 1851년에 막부로부터 용자를 받아 위기를 겨우 극복했다. 요약하자면 에도시대 말기 스미토모가(住友家)의 사업은 정말 위태로 왔다⁵¹⁾.

그리고 스미토모는 내부의 경제난과 함께 막부 말·유신기의 정치적 격동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우선, 도쿠가와 막부의 벳시 가이우케마이(買請米)⁵²⁾의 삭감, 그 위에 그 폐지를 도모한 것은 벳시동산의 채광 작업을 곤란하게 했다. 벳시산 구리는 에도시대에는 전부 도자(同座)로 납품되어 나

48) 宮本又次, 江戸札差と住友家, 住友銀行史編輯委員會編, 1975, pp12-16.

49) 후다사시(札差)란 에도시대, 하타모토등의 쇼군직속의 무사들의 대리인으로 녹미의 수령이나 처분 등 일체의 업무를 맡아서 하던 상인을 말한다.

50) 同座란 에도중기 이후, 여러 지역에서 산출한 동의 정련 및 그 전매를 담당했던 기관을 말한다.

51) 畠山秀樹, 住友財閥成立史の研究, 同文館, 1988, pp12-21

52) 막부로부터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수하는 쌀

가사키(長崎)에서 네덜란드와 청나라에 출하되고 있었고, 막부는 그 대가로서 벳시동산에 곡물을 시가보다도 저렴하게 지급하여 스미토모家は 그것을 광부들의 식량으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1865년 11월 막부는 제2차 조슈(長州)정벌에 임한 군량미 확보를 빌미로 벳시(別子),다치가와(立川)의 두 동산(銅山)에 할당되어 있던 가이우케마이(買請米) 제도를 1866년 8월에 폐지하였다. 이러한 내외적으로 부닥친 급박한 시기에 스미토모를 구한 사람은 히로세 사이헤이(広瀬幸平,1828-1915)였다. 히로세는 1828년 지금의 시가현에 해당되는 오미(近江)에서 태어나 11세에 벳시동산의 출납계에 급사로 봉공하였다. 봉공(奉公)이라 함은 뗏치제도 라고도 하며 에도시대에 상가에서 보여지는 고용관습으로 경영자양성을 목적으로 데치(丁稚) 데다이(手代)-반토(番頭)의 계층제에 의존했다. 1880년대의 마쓰자카야(松坂屋)를 예를 보면 데치가 4단계, 데다이가 5단계, 반토가 3단계로 전부 12단계로 이루어져 반토가 되기까지는 30년 정도 걸렸다⁵³⁾.

히로세도 봉공 근속17년째인 28세에 결혼을 하고 39세에 벳시동산의 총지배인으로 승진하였다. 이윽고, 명치유신으로 막부의 붕괴로 인해 다이묘다이(大名貸)⁵⁴⁾나 동 판매대금 등의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한층 더 유신정부가 가이우케마이 대금의 현금결제를 요구한 것은 스미토모의 사업경영을 곤란하게 했다. 그리고 메이지유신이 일어나면서 1868년 2월에 벳시동산이 메이지유신의 주체세력인 토사번(土佐藩)에 의해 압류 당했다. 벳시동산(別子銅山)은 본래 막부령이었으며 방치해두면 메이지 정부의 소유가 되었을 것이나, 히로세 가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하여 토사번과 유신정부의 고위층에게 손을 쓴 결과 스미토모가의 벳시동산의 경영이 계속 인정되었다⁵⁵⁾.

또한, 히로세는 경영이 부진한 벳시동산의 매각설을 뿌리치고 벳시의 경영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특히 프랑스인 기술자의 코니(F.Coignet)와 라로크(L. Larroque)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 서양식기술을 도입시켜 근대화하여 벳시동산의 재생에 힘을 쏟았다⁵⁶⁾. 막부말기까지의 일본의 광물자원은 지표에 드러난 부분만 채굴하여 낮은 기술수준으로 채굴불능이 되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광산이 많았다. 새로운 광구의 발견보다

53) 中野卓, 商家同族団の研究, 未来社, 1964, pp40-70.

54) 상인이나 大名를 상대로 고율의 이자로 돈을 대부하는 것

55) 小倉栄一郎, 近江商人の系譜, 現代教養文庫, 1990, pp187-188.

56) 作道洋太郎, 住友財閥, 日本經濟新聞社, 1982 pp35-42.

는 오히려 기존의 황폐한 광산을 새로운 기술로 재개발 하는 편이 이윤을 올릴 수 있다는 코니의 지적을 히로세는 수용하였다.

히로세는 코니의 의견을 받아들여 1874년 프랑스인 라로크를 고용하여 근대화에 착수하였다⁵⁷⁾. 니하마(新居浜)의 제련소건설, 수송편의를 위해 니하마와 벳시간의 도로정비, 갱도를 정비하기위한 동연사갱(東延斜坑)의 개축등 총경비67만圓의 대공사를 단행하였다.

한편 제련은 용광로의 도입으로 서양식제련이 채용되었다. 라로크의 도안에 의해 건설된 용광로로 銅鉞(동피)1000관을 제출하기 위한 필요한 연료와 광부수는 <표 2>의 같다.

<표 2> 벳시동산의 제련법 개량

	구법	신법
목탄사용량	1,555 관	667
소광투입량	3,555 관	2,766
광부수	30 인	12
조업시간	88 시간	40

출소: 別子開坑二百五十年史話, 1941年, pp316-8.

만약 燒磺(소광)의 함유량이 동일하다면 투입량은 3,555관에서 2,766관으로 줄어들고 광부수도 30인에서 12인, 조업시간도 88시간에서 40시간으로 전체의 45%-50%정도 절약분이 나타났다⁵⁸⁾. 따라서 당시로서는 대폭적인 생산비절감과 노동생산성 향상에 공헌하였다고 하겠다.

상술한바와 같이 기술개량은 <표 3>처럼 구리의 산출량의 증가와 결부되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1877년에 벳시의 구리 산출량은 100만근을, 1885년에는 200만근을 넘었으며. 그리고 1890년에는 300만근을 넘었다.

또한 벳시동산의 성공은 다른 민간인들도 동 산업에 진입하게 되어 경쟁과 함께 산출량증가도 이어졌다. 1884년 아시오(足尾)동산에 2위를 빼앗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벳시동산의 산출량과 생산액에서 1위를 기록하였을 정도이다. 그러나 1884년부터 아시오동산의 추격이 시작되고 벳시의 국내시장점유율도 1874년의 23%에서 1889년의 10%까지 떨어진 것은 히로세가 벳시동산의 경영에 전념하지 않고 다각화경영을 이루다보니 벳시동산

57) 株式会社住友本社, 別子開坑二百五十年史話, 1941年, pp308-343.

58) 武田晴人. 日本産銅業史, 東京大学出版会, 1987, pp28-29.

의 경쟁력이 저하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⁵⁹⁾. 하지만 금융업과 창고업이 스미토모은행으로 편입되고 미쓰이, 미쓰비시가 공업화중심으로 전환하여 산업자본화 되었을때 스미토모가 이들과 나란히 갈수 있었던 기초를 이룬 것을 보면 히로세의 제조업과 탄광등의 다각화경영을 무시 할 수 없다.

<표 3> 주요동산의 산출량

(단위: 천근)

동산지명 년도	벳시	요시오카	아시오	쿠사구라	아라가와	오고야	전국합계
1868	703	83					
70	790	41					
74	818	222					3,512
75	930	183					3,998
76	856	21					5,303
77	1,348	129	93	155			6,571
78	1,715	19	83	181			7,094
79	1,651	25	151	287			7,718
80	1,824	87	154	288		20	7,782
81	1,241	91	289	318	502	38	7,953
82	1,964	95	489	740	376	155	9,360
83	1,708	123	1,090	1,694	407	280	11,291
84	1,726	219	3,847	1,807	405	380	14,814
85	2,512	612	6,886	1,719	392	427	17,568
86	2,345	574	6,052	1,358	532	657	16,290
87	2,444	487	4,968	1,337	650	864	18,440
88	2,648	556	4,107	1,085	644	968	22,291
89	2,736	798	6,859	1,138	1,104	982	27,090
90	3,057	1,000	9,740	1,379	1,392	1,132	30,356

출소: 明治工業史-鈹業編, 朝日新聞社, 日本經濟統計年鑑

이어서 히로세의 뒤를 이은 사람은 히로세의 생질인 이바 사다오카(伊庭貞剛)이며 히로세시대의 기탁상품을 담보로 하는 나미아이(並合業)를 은행으로 전환시키고, 제철소, 석탄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⁶⁰⁾ 히로세의 초기적다각화를 정비하여 체계적인 다각화를 이루어 스미토모의 재벌화에 기여했다.

스미토모는 미쓰이와 미쓰비시처럼 政商的 활동을 통해 광산경영을 한것이 아니고 광산업자로서 출발하여 재벌로 성장하였다는 점이다⁶¹⁾. 그렇기

59) 森川英正, 日本財閥史, 教育社新書 1978年, pp94-102.

60) 野田一夫, 전계서, pp34-42.

때문에 히로세의 다각경영이야말로 스미토모에서의 커다란 기업가적 역할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히로세가 미쓰이의 미노무라와 나카미가와, 그리고 미쓰비시의 이와사키, 소다 등과 다른 점은 우선 그는 나카미가와, 이와사키, 소다등은 하급무사출신 이었으나 히로세는 11살 때부터 스미토모에 봉공한 스미토모의 別家출신 이란 점과 미노무라는 외부에서 온 반토였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리고 드물게 산업자본화에 뛰어들었다는 점도 미노무라와는 다른 점이다.

4-3. 신흥 기업 미쓰비시(三菱)의 등장과 도전

미쓰이나 스미토모에 강한 긴장감을 준 막부 말·유신기의 정치·경제적 변동도 신흥 기업가들에게는 새로운 비즈니스 찬스의 확대로 인식되었다. 신흥기업가의 대표적 사례로서 미쓰비시의 발전 과정을 논하기로 한다.

미쓰비시는 미쓰이나 스미토모처럼 에도시대부터 존재했던 상가의 계보를 갖고 있지 않았다. 미쓰비시의 창시자 이와사키 야타로(岩崎弥太郎, 1834-85)는 토사(土佐: 현재의 高知県)의 하층 하급 무사의 보잘것없는 집에서 태어났다. 막번제적 신분 질서 안에서는 입신출세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시절에는 학문에 뜻을 두었다⁶²). 그는 1859년 스승 요시다(吉田東洋)의 추천에 의해 처음 번직(藩職)에 임했지만 이후 몇 년간 위치는 불안정했다. 1867년 번영(藩營)상사 카이세이칸(藩營商社開成館, 66년 설치)의 나가사키(長崎) 출장소(나가사키 상회)로 출장을 명받았을 때 번영상사개성관의 최고 책임자 고토(後藤象二郎)는 오사카부(大坂府)의 知事を 담당했기 때문에 이와사키에 상회 운영을 위탁했다⁶³).

그러나 메이지 정부가 1869년에 번이 운영하는 상회소나 쿠라야시키(蔵屋敷)⁶⁴상법을 금지했기 때문에 오사카상회는 9월을 마지막으로 상회를 藩(번)에서 분리하여 民營의 형태인 쓰쿠모상회(九十九商会)로서 10월 발족했다⁶⁵). 토사번(土佐藩)이 폐번치현(廢藩置縣)으로 고치현으로 바뀐 후인 1872

61) 森川英正, 전거서, p24.

62) 伊丹敬之外 日本的經營の生成と發展, 有輩閣, 1998, pp44-45

63) 이와사키(岩崎)는 나가사키에서 토사(土佐)에서 출하하는 장뇌(樟腦)를 주된 담보로 무기나 군함을 외국 상사로부터 매입하는 일에 종사하여 외국인과의 거래 경험을 쌓는 것과 동시에 사카모도 료마(坂本竜馬)가 인솔하는 토사번(土佐藩)의 해원대(海援隊)나 사츠마번(薩摩藩)의 고다이 도모야츠(五代友厚)등과 교류를 깊이 했다.

64) 에도 시대에 다이묘 등이 영내의 쌀·특산물 등을 저장·판매하기 위해 에도·오사카 등지에 두었던 저택

년 쓰쿠모상회는 미쓰가와(三川)상회로, 그리고 다시 미쓰비시(三菱)상회로 이름을 새롭게 하여 사실상의 주인처럼 되어, 토사번 으로부터 4만량(4万兩)에 불하 받을 수 있었던 2척의 기선을 기초로 해운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⁶⁶⁾.

당시의 연해항로에는 범선을 이용한 재래해운업자, 기선을 이용한 국내 해운기업, 외국기업 등이 경합하고 있었다. 국내해운기업의 경우는 정부소유선의 불하를 받아 공미(貢米)수송의 특권을 갖고 있던 우편증기선회사(郵便蒸氣船)회사로 미쓰비시는 여기에 도전장을 냈다⁶⁷⁾. 우선 사가의 난(佐賀の乱, 1874년 2월)에서는 미쓰비시 상사는 정부의 명령에 의해 2척의 배로 수송에 종사하게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메이지 정부와의 관계가 성립되었다.

본사가 오사카(大阪)에서 도쿄(東京)로 옮겨진 1874년 4월의 타이완출병 때에는 메이지정부가 국책 회사 우편 증기선 회사(国策会社郵便蒸氣船会社)에 병력수송을 의뢰했으나 국책 회사인 우편 증기선 회사가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에 비해 사기업인 미쓰비시 증기선 회사는 당시의 대신들인 오쿠보 도시미즈(大久保利通)나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미쓰비시가 일본정재계의 강력한 政商으로서 등장한 것이다.

일본정부는 출병 종료 후인 1875년 5월에 미쓰비시에 대한 보조를 통해 해운업을 발전시키는 방침을 정식으로 결정하여 소유선박을 교부하고 군사수송의 독점권부여, 13척의 정부선박의 불하(1875년9월), 그리고 연 25만 엔의 보조금을 급부하게 되었다. 보조금은 1876년 제2명령서(第二名令書)에 의해 14년간 급부하게 되었다. 1875년-83년에 미쓰비시에 주어진 각종 보조금은 800만 엔에 달하였으며 그중 받은 반제의무가 없는 것이었으며 나머지도 10-50년의 장기저리의 반제특권이 주어진 貸与金이었다⁶⁸⁾.

이러한 정부의 보호육성에 의지하여 미쓰비시는 라이벌인 우편 증기선 회사를 75년 6월에 해산시킨다. 우편 증기선 회사 소유의 선박 17척(원가 62만엔)은 정부에 의해서 수매된 후에 미쓰비시에 무상으로 불하되었다.

1876년에 발생한 두 번의 사족반란과 마지막 사족반란인 1877년의 세이난전쟁(西南戦争)에서도 우편기선 미쓰비시회사(1875년에 미쓰비시 기선회사라고 개칭한 후, 같은 해 한 번 더 바꾼 명칭)는 육해군의 병력과 군수

65) 坂本藤良, 幕末維新の經濟人, 中公新書, 1986, p152.

66) 安岡重明, 전계서, p49.

67) 中川敬一郎, 外, 近代日本經營史の基礎知識, 有輩閣, 1983, pp30-31.

68) 김중현, 근대일본경제사, 비봉출판사, 1991, p58.

품 운송에 종사했다. 그 결과 미쓰비시의 소득내용을 살펴보면, 해운에서의 소득은 1876년의 4만6천円, 1878년 6만4천円인데 비해 1877년 한해만 171만円の 소득을 얻어 정상으로서의 미쓰비시의 위력을 살펴 볼 수 있다⁶⁹⁾. 1877년 미쓰비시는 기선61척을 소유했으며 합계는3만5천62톤으로 전국의 73%를 차지할 정도로 해운업계에서는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⁷⁰⁾.

미쓰비시가 1870년대 해운업을 주축으로 발전했지만 거의 전부가 이와사키의 탁월한 기업가정신에 의존하였다고 하겠다. 이와사키는 1896년2월 타계했지만 동생 이와사키 야노스케(岩崎弥之助), 가와다 고이찌로(川田小一郎)등 유능한 인재가 많았기 때문에 발전했지만 특히 소다헤이고로(荳田平五郎)의 기업가적 역할은 미쓰비시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고 하겠다.

소다는 후쿠자와의 문하생으로 1875년 미쓰비시에 입사했지만 입사초기부터 이와사키의 신뢰를 얻어 이와사키의 참모로서 뛰어난 실적을 보였다. 특히 창업자와 관련이 없는 전문경영인으로서 미쓰비시의 경영관리의 근대화는 물론, 미쓰비시의 사업다각화는 거의 소다의 손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그의 공적은 대단했다. 즉, 보험업(동경해상화재, 메이지생명), 창고업(미쓰비시창고)은 원래 소다의 기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⁷¹⁾. 그 외 광산업에로의 진출(다카시마(高島)탄광), 부동산업에의 진출(미쓰비시 地所) 그리고 나가사키조선소의 확충, 합리화⁷²⁾ 등의 기업가적 역할은 미쓰비시의 財閥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미쓰이의 나카미가와와 소다는 후쿠자와의 문하생이란 점에서도 같고 전문경영인이란 입장에서 같았지만 나카미가와와 독선적 타입과 개혁위주의 리더십에 비해 소다는 이와사키 야노스케를 보좌하며 財閥화에 앞섰다는 점에서는 다른 면이 있다고 하겠다.

5. 결론

일본의 산업화는 영국의 자생적 흐름보다는 메이지유신 이후 정부의 주

69) 石井寛治, 日本經濟史, 東京大学出版会, 1991, p41.

70) 橋本寿朗, 日本經濟の發展と企業集團, 東京大学出版会, 1993, p27.

71) 三島康雄, 日本財閥經營史, 日本經濟新聞社, 1981, pp41-46.

72) 森川英正, 전게서, p107.

도하에 추진되었다. 산업화가 스스로 전개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제 조건이 형성되지 못한 후진국상태에서 일본의 메이지정부는 위로부터의 산업화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사, 방적 등의 近代사업에 관영사업을 이식했으나 초기에는 실패를 거듭하였다. 그 이유는 신산업을 이해하고 산업을 이끄는 기업가가 없어서 성공하지 못한 것이었다.

일본에는 역사가 오래된 商家가 있었지만 신산업은 구상가의 비즈니스와는 달랐으므로 상인들도 신산업의 기업가가 되지못했고 그렇다고 엘리트계급인 무사계급에서도 공업화과정에서 창조적으로 일탈 반응하려는 의식, 즉, 기업가적 행동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시민계급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기업가는 양성되지 않았으므로 근대화를 위하여 사농공상 그 누구도 과거의 이익만을 취하는 허업(虛業)이 아닌 부국강병에 필요한 實業이란 신선한 용어를 만들어 이를 담당할 주체 즉, 實業家(기업가)를 탄생시킨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혁신으로 상가인 미쓰이(三井)는 외부에서 영입한 반토출신의 미노무라 리자에몽(三野村利左衛門)이 상가자본에서 정상적자본으로 전환시켰고 정상적자본의 미쓰이를 나카미가와 히코지로(中上川彦次郎)는 뛰어난 기업가정신으로 학사출신의 전문경영자를 대거 고용하여 재벌로서의 기틀을 만들었다. 스미토모(住友)도 이와 마찬가지로 11살의 소사부터 시작한 반토의 히로세 사이헤이(広頼幸平)가 구리동산과 환전상의 스미토모상가를 정상적자본과 재벌적 단계의 중간단계에 이르기까지 다각경영에 힘을 썼으며 이바 사다오카(伊庭貞剛)는 완전한 다각화경영에 힘을 쏟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경영인 즉, 학사출신의 실업가들이 뒷받침 하였다.

상가출신이 아닌 하급무사출신의 이와사키 야타로(岩崎弥太郎)는 미쓰비시를 만들면서 왕성한 기업가정신으로 政商적 자본으로 출발하여 다각화를 이루면서 재벌의 기틀을 만들었다. 창업자 이와사키를 보조해주면서 소다헤이고로(莊田平五郎)는 재벌에의 전환을 확실히 하였다.

미쓰이, 스미토모, 미쓰비시의 일본을 이끈 재벌은 근대화과정에서 대규모기업을 만들면서 발전하였다.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등의 대기업과 다른 점은 동족지배가 강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상가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발전한 상가의 정상적 자본에서 산업화자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이들의 상가동족단을 인정하면서 발전한 결과이고 아울러 엘리트계급인 학사출신의 전문경영자도입도 커다란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일본의 재벌들은 중공업이 발전하면서 더욱더 대규모기업으로 발전하였

고, 은행업을 겸업하면서 유통업, 서비스업까지 진출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다각화는 근대화과정에서 나타난 일본의 전문적경영자의 기업가정신이 얼마나 왕성했는가를 말해주는 일면이기도하다.

【参考文献】

- 김종현, 근대일본경제사,비봉출판사, 1991, p58.
- 이덕훈, 근대일본기업가와 무사정신의 변용 한일경상논집,제15권, 1998년8월, 한일경상학회, p175
----- 전후일본의 기업가의 등장과 사회적 배경, 일본문화학보,제17집,2003년5월, 한국일본문화학회,pp196-201
- 藤田貞一郎,商家の資本蓄積,日本経営史講座1,日本經濟新聞社, 1977, pp119-131.
- 安藤良雄,日本資本主義の歩み,講談社現代新書, 1978, pp12-19
- 橋本寿朗, 武田晴人,日本經濟の發展と企業集團,東京大学出版会,1993,p22
- 坂本藤良,幕末維新の經濟人,中公新書726,1986,p112
- 木村恒夫, 銀行其の他 金融業の發達, 岩波書店, 日本資本主義發達史講座, 1982, pp5-6.
- 森川英正, 日本財閥史 ,教育社, 1978. p32.
- 安岡重明,財閥の經營史, 日經新書, 1984, p28.
- 日本經營史研究所編, 中上川彦次郎伝記資料,東洋經濟新報社, 1969, p546.
- 武内成, 三井呉服店及び三井工業部における慶應義塾卒業生の動向,近代日本研究, 慶應義塾福沢研究センター, 1986, pp67-71.
- 中井信彦, 三井家の經營,社会經濟史学, 1966, pp97-99.
- 坂本藤良, 日本雇用史(上), 中央經濟社, 1977, pp171-190.
- 野田一夫, 財閥,中公新書, 1981 p14.
- 宮本又次, 江戸札差と住友家, 住友銀行史編輯委員会編, 1975, pp12-16.
- 畠山秀樹, 住友財閥成立史の研究, 同文館, 1988, pp12-21
- 中野卓, 商家同族団の研究, 未来社 ,1964, pp40-70.
- 小倉栄一郎,, 近江商人の系譜,現代教養文庫, 1990. pp187-188.
- 作道洋太郎, 住友財閥,日本經濟新聞社, 1982 pp35-42.
- 株式会社住友本社,別子開坑二百五十年史話, 1941年, pp308-343.
- 武田晴人. 日本産銅業史,東京大学出版会, 1987, pp28-29.
- 森川英正, 日本財閥史,教育社新書 1978年, pp94-102.

- 伊丹敬之外 日本的經營の生成と発展,有輩閣, 1998, pp44-45
- 坂本藤良,幕末維新の經濟人, 中公新書, 1986, p152.
- 中川敬一郎,外, 近代日本經營史の基礎知識,有輩閣, 1983, pp30-31.
- 石井寛治, 日本經濟史,東京大学出版会, 1991, p41.
- 橋本寿朗, 日本經濟の発展と企業集団, 東京大学出版会, 1993, p27.
- 三島康雄, 日本財閥經營史, 日本經濟新聞社, 1981, pp41-46.
- Neil S. Smelser,“Mechanism of Change and adjustment to Change ”
in Bert F. Hoselitz and Wilbert E. Moore (eds),Industrialization
and Society. (The Hague: UNESCO and Moution) 1963. pp.
32-54.
- Marion J Levy Jr. “ Social Patterns (Structure) and Problems of
Modernization” Wilbert E Moore and Robert M Cook (eds)
Reading on Social Change Prentice Hall.,Englewood Clifts N.J.
1967. pp189-208.
- Mansel Blackford, The Rise of Modern Business in Great Brita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8. pp12-35

要 旨

The industrialization in late developed countries should be proceeded on the basis of specific institutional implement and entrepreneurship(that is, intellectual environment that promotes an industrialization)which are consentaneous to each country while the basic framework of industrialization is modeled after the developed countries' cases.

The entrepreneurial activities in Modern Japan, which may be switched over, in some sense, the ethos of Western society, would be a necessary consequence for the industrialization of an Oriental late developed country, Japan.

This research explores the entrepreneur activities showed by Japanese conglomerates Mitsuyi, Mitsubishi, and Sumitomo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that capital structure is changing from commercial capital to industrial capital.

キーワード : industrialization, entrepreneurship, Japanese conglomerates, commercial capital, industrial capital, Modern Japan

투 고 : 2007. 2. 28
1차 심사 : 2007. 3. 10
2차 심사 : 2007. 3. 31

住 所 : (301-783)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24 목양마을 아파트 102동401호

電 話 : 042-226-8902, 011-406-7510

e-mail : lee.d.h@hannam.ac.kr